

알레르기성 피부병



국 홍 일

알레르기성 질환—정말 흔하고 귀찮은 병이다. 그리고 이 말 자체의 개념이나 증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도 드물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가히 알레르기 신드롬(과민반응후군)이란 유행어가 나온직한 시대가 되었다.

알레르기라는 말과 증상을 몰랐던 몇십년 전만 해도 이런 증상을 앓는 사람들은 원인물질을 가려내어 면역력을 기르고 끈기있는 치료로 증상완화에 신경을 써야 했다.

평생 약 한번 안먹고 죽는 사람은 없다. 많은 종류의 약이 일상생활에 필요한데 어떤 증상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었을 때 또는 정량을 투여했는데도, 그 약리작용 중 원하지 않는 부분의 작용으로 인해 예기치 않는 피부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기전을 일일이 설명해 줄 수도 없어 쓴 웃음만 지을 수 밖에 없다.

알레르기란 무엇이나? 한마디로 단정할 수가 없다. 사전같은데 보면 딴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물질이나 식품을 먹거나 접촉하면 독특한 증상을 나타내는 체질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다. 의학적으로 설명해 보면 과민성상태(Hyper sensitivity)와 교체 사용할 수 있는 인체 방어기능을 뜻한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혹은 어떤 물질에 접촉되었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거부반응으로 인체는 자신을 보호한다. 즉 인체가 면역학적으로 과민상태가 되었을 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나 음식(抗原)에 다시 노출되면 2차적으로 더 강한 면역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조직손상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반응이 너무 과민하여 자신을 공격하는데 있다. 콧속 점막(粘膜)에는 먼지나 공기 중에 떠다니는 부유물질을 일차적으로 거르고 콧물과 함께 배출하는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이 과민해져서, 약간만 자극을 받아도 필요이상의 콧물을 방출, 코 주인을 번거롭고 귀찮게 만드는 것이다.

**피부에 나타나는 알레르기병은 아토피성 피부염,
두드러기, 약진, 접촉성피부염 등이 대종을 이룬다.**

외부물질과 제일 먼저 접촉하는 피부도 예외는 아니다. 우유와 복숭아 등 몸에 좋은 것을 먹자마자 입술이 부어오르고 피부발진이 돋는 수도 있고 옷을 만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멀쩡한데 어떤 사람은 옷 근처에만 가도 심한 접촉 알레르기 피부염을 앓는 것이다.

피부에 나타나는 알레르기병은 아토피성피부염, 두드러기, 약진(Drug Eruption), 접촉성피부염 등이 대종을 이룬다.

아토피성피부염은 가족력과 체질적인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환자가 피로움을 당하는 원인물질(抗原)로 피부검사를 했을 때 즉각적인 팽진(膨疹) 반응이 있어야 한다. 태열(苔熱)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이 질환은 전 인구의 0.25~20%의 발생률을 보이는 지극히 만성적인 습진양상을 띠는 피부질환이다.

신생아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성장해 가면서 몇가지 서로 틀리는 증상을 보인다. 생후 2개월부터 2년 사이 유아의 양쪽 볼에 불그스름한 반점(紅斑)이 나타나기 시작, 작은 물집(水疱)이 형성되면서 몸통이나 머리·이마·팔다리 등으로 급속히 퍼져 나간다. 이때의 피부변화는 가려움증에 의해 문지르고 긁어 피부가 가죽같이 되고(苔癬), 심한 경우 찢어지고 2차감염까지 동반된다.

아동기에는 팔다리가 접치는 부위, 목이나 손목 등에 건조한 구진성(丘疹性) 병변이 나타나고 심하게 가려워 손톱자국이 수없이 나며 피부가 두꺼워진다. 성인이 되면 피부는 전반적으로 두꺼워지고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게 반응, 가려움증이 심해 굵느라고 정신을 못차린다.

두드러기는 전 인구의 20%, 5명에 1명꼴로 흔하게 나타나고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흔한 알레르기질환이다. 우리의 삶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화학적·기계적 자극이 두드러기를 유발하는데, 약물로는 페니실린 아스피린이 가장 흔하고 조개·생선류·초콜릿·딸기·치즈·우유 등 음식물도 이 고약한 증상을 일으키는 원흉이다. 거기다 공기 중에 떠돌아 다니는 먼지나 곰팡이도 한 몫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도 두드러기를 일으킨다.

위낙 흔한 증상이어서 의사아닌 사람도 진단할 만큼 독특한 증상을 보이는데 맨처음 나타나는 부위가 약간 가렵다가 콩알만큼 작은 것에서부터 손바닥 만큼 넓은 팽진이 불규칙한 지도모양을 그린다.

급성일 때는 12~24시간 내에 아무런 후유증없이 소실되는데 그사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하게 가렵고 원인물질이 장관(腸管)을 침범했을 때는 배가 몹시 아프고 구역질을 동반하기도 한다. 단순한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두드러기는 전 인구의 20%, 5명에 1명꼴로
흔하게 나타나고,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흔하다.

이 알레르기질환은 심한 경우 보기싫은 사람이 있을 때는 직장생활에도 지장을 받는다.

급성일 때는 항히스타민제를 쓰고 두드러기의 원인이 제거되면 잘 낫지만 두드러기가 반복해서 생기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성두드러기는 그 고통이 극심하다.

알레르기반응을 나타내는 약진의 증상은 피부증상 하나로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으며 거의 대부분 전신증상을 보인다. 심한 경우 호흡마비나 쇼크로 죽기까지 한다(페니실린의 경우). 피부에 고름집이나 물집이 생기고 여드름성 발진도 생긴다. 이 증상은 투약을 중단하면 즉시 없어지지만 체내에 축적되는 약물은 중단해도 장기간 증상이 남는다. 특히 설파제나 혈압강화제는 다음에 기술하는 일광알레르기를 발생시키므로 의사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알레르기성은 협조가 물질에 접촉해서 접촉성피부염을 일으키는 것이 큰 문제다. 인간의 삶 주위에는 온갖 접촉물질이 존재한다. 이들 물질 자체는 독성이 없을지라도 그에 대한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체질이면 상당히 심한 피부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주 접촉되는 물질이 머리염색약, 스트레스가 늘고 생활환경이 복잡해질 수록 흰 머리털이 늘어나고 이 흰머리는 사회생활에 역작용을 일으켜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한다. 이 때문에 머리염색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과민체질자의 경우 접촉후 6~48시간 이내에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한 홍반이나 구진, 삼출성병변이 생기고 이 상태가 멎어가면서 건조한 비듬같은 것이 나타나고 이 괴로운 증상은 1~2주까지 계속된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머리염색약 뿐만이 아니다. 혈압강화제나 설파제 등을 먹고 햇빛에 노출되면 일광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생기고 옷에 노출되면 아주 심한 증상이 생기는 사람도 있다. 고무, 화장품, 나무나 식물의 수액(樹液)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의 화장품도 이런 피부염을 일으켜 미용을 망쳐놓는다. 귀거리나 안경테, 밴드의 쇠붙이에 의해서도 피부방어기전이 서서히 파괴되면서 독특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알레르기-이 증상은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숙명적 질환이다. 그러나 원인에 따라서는 슬기롭게 피해질 수도 있으며 이 피해가는 길은 자신에게 달린 일종의 생활병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㉞

〈필자=국홍일 피부레이저 클리닉 원장〉